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성경: 전도서 3장 1-14절

Tag: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14)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말씀을 읽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은 진리이다. 그러나 그 때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 시각에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각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때이다.

그러므로 때란 내가 정할 수 없는 때를 정하시는 분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밀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간을 밀당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은 동물적이다.

다시 말해서 천성적이다. 타고난 감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본성이 말해주는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때에 대한 교훈이 참으로 많다.

오직 사람들은 때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밥 먹을 때를 놓치고 게임하기가 일쑤다.

어떤 남자는 자기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렸다는 영화도 있다.

오직 사람만 지각을 하고, 재워야 하고, 깨워야 하고, 알람을 사용한다.

이유는? 자유로운 존재라서 자기의 시간을 자신이 통제하고픈 욕구

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시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다리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5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을 놓친다.

사람마다 이런 열정이 지나쳐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해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한다. 결국 몸은 혹사 당하고, 피로가 누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고장 나고 병든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바르게 돌려놓지 아니하면 인생은 금방 망가진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훈련을 잘 시켜 주어야 한다. 시간에 대한 훈련만 잘 해도 그 아이는 인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한다.

다, 때가 있다. 배울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잘못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 습관이 되면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다.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다. (이 때의 죽음은 살인할 때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죽어야 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

-장의사는 죽일 때가 되었다고 하고, 의사는 아직은 치료할 때라고 한다.

-인생에서 때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두 때;태어날 때, 죽을 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때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때를 어떻게 결정하실까? 인생의 최종 점수를 받는 날.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날. 하나님과 밀당을 잘 하자. -

죽게 되면 죽지요~ 무책임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좋아 하실까? 삶을 허송하는 자로 보이지 않을까? 지혜가 아닌, 무식자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가?

-죽을 때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자는 뜻이 가게 하소서. 천사가 맞이하러 오게 하소서.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식구나 친구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다.

-정치나 국가간의 갈등과 관계된 말씀이다.

-정치는 잇속과 관계가 깊고, 체제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정적을 미워하고 제거해야 할 때가 있다.(체제에 따라 이익을 만드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 경제와 체제를 분리하지 말라.) 전쟁도 마찬가지.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라는 생각은 거짓말. 인류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 진짜 지도자는 전쟁 준비가 철저해서 감히 아무도 전쟁하려고 덤비지 않는 상태가 평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전쟁할 때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국민 전체의 운명과 세계공영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다.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하셨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폴망)

-그러므로 불로소득은 악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임대료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각한다.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

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한다.

11 ...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알아도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효과를 누린다.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철저히 봉인하셨다.

-세대주의자들은 2000년을 중심으로 힘을 잃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못 예측한 후폭풍이 크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임박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중요한 때에 대해서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싸이클에 귀를 맞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가 돌아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는 날 동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하게 수고할 때만 낙을 누리게 된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선하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산상수훈 성경: 마태복음 5:3

Tag: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5:3)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윤리냐 복음이나 / 회개용이나, 실생활 지침서냐 /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필요하냐 지금이 곧 하나님의 나라냐 / 성령을 받기위해서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냐 복을 받고 난 다음이나

1. 윤리냐 복음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윤리), 심령이 가난한 내가 복있는 사람이구나(복음)

34.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5:13)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윤리)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그러니 맛을 잃지 말아라(복음)

36. 마태복음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5:44)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라(윤리)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니, 그러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리라(복음)

38. 마태복음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

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께서 갚으시리라 (마6:6)

-기도는 반드시 골방에서!(윤리) 기도하는 것으로 자랑거리 삼지 말
것(윤리) 은밀하게 기도하더라도 아버지가 들으시고, 갚아 주신다.(복
음)

40. 마태복음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
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
둑질도 못하느니라 (마6:20)

-헌금해야 한다.(윤리) 최고의 저축은 하늘에!(복음)

산상수훈을 복음으로 해석하라. 그 다음에 윤리적 지침으로 활용하
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윤리는 짐이 아니라 복된 길이 된다.